

李 “중동전쟁, 경제에 큰 위협… 근본적 체제 전환 필요”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중동사태 대응·지속가능 성장 논의
최우선 과제에 생산적 금융 전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강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는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경제 자문기구인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중동 전쟁 여파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중기적·장기적

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서는 경력을 갖춘 청년을 요구하지만, 청년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기회를 국가 공

동체가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청년 취업 정책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중동 상황과 관련 혁신을 통한 ‘대체 불가한 전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의장은 “아시아시피 이 전쟁은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닐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은 안전 통행이 가능한 해협에서 차단기가 있는 톨게이트로 바뀌고 있고, 미국은 전쟁하면서도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칙이 무너지는 분절적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차원의 대체불가성을 확보해 상대가 쉽게 배제하거나 압박하기 어려운 전략적 위치에 서야 한다”며 “기존의 중견국론이나 선진국론과는 접근이 다르다. 경제적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산업 정책에서 경쟁 우위뿐 아니라 대체불가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를 위해 소액 투자자들을 위

한 배당소득세를 비롯해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도 거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못 하게,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는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거 같다”면서 “별도 항목으로 검토해서 기업들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대규모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아차피 주택 문제의 다음 단계로 농지, 그 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정부, 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동결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구윤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 총력”

석유류 3차 최고가격제에서는 리터(1)당 가격의 수위가 올라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3차 최고가격제를 2차 때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9일 밝혔다.

3차 최고가격은 리터(1)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10일 0시를 기해 적용됐다.

정부는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하에 국제유가와 수급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급관리 기조를 유지했다”며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석유제품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과, 민생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경유의 경우, 화물차운전자, 택배기사, 농민·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내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

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전담반) 6차회의’를 주재하고 3차 최고가격제 관련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그는 “정유업체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

휴전에도 곳곳 포화… 최종합의 가시받길

미·이란, 휴전 조건 두고 입장 차

‘휴전’이라는 문구가, 공표 이후 24시간도 채우지 못한 시점에 퇴색했다.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에 아랑곳하지 않고 레바논 영토에 맹폭을 가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기는커녕 돌아서진·출입하라는 등 계속 틀어막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내건 페르시아만 주둔 미군 병력의 철수 요구를 일축했다.

중동 사태가 여전히 가시밭길에 놓여 있음을 방증하는 단 하루, 일련의 사건들이다. 게다가 이란 정치권 내 강경파는 전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항전 의지가 견재함을 자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8일(현지시간) 연설에서 “남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전투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손가락을 방어쇠에 얹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의 발언은 이스라엘방위군의 레바논 공습 직후 공개됐다. 레바논 보건부 집계 따르면 이날 곳곳에 가

진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최소 182명이 숨지고 890명이 부상했다. 베이루트와 레바논 남부, 동부 베카계곡에 10분 만에 100여 곳을 집중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은 합의된 휴전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이 들어 있다며 향후 협상을 이어갈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란은 기뢰 위험성을 들어 우회 항로를 제시했다.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이란 항만당국은 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혁명수비대 해군과 협조해 대체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페르시아만 전쟁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주요 교통로에 대한 기뢰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적은 글에서 “미군 함정과 항공기, 병력, 탄약, 무기체계는 진정한 합의에 도달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에 그대로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metro

휴전-공격 반복… 국제유가 불확실성 지속

호르무즈 통항 불안 우려에 소폭 반등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소식으로 10% 이상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다시 소폭 반등했다.

9일 산업통상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 따르면, 전쟁 발발 42일째인 현재 중동 정세는 휴전 소식과 재공격 보도가 이어지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Brent)유는 배럴당 96.70달러(+2.1%),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96.66달러(+2.4%)를 기록했다. 이는 전쟁 이전인 2월 27일 대비 각각 33.4%, 44.2% 상승한 수준이다. 전날(8일) 휴전 소식으로 대폭 하락했던 유가는 로이터 등 일부 외신의 ‘호르무즈 통항 중단’ 보도가 전해지며 다시 상승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

다. 9일 7시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979.85원, 경유는 1971.59원으로 전일 대비 각각 0.11%, 0.10% 상승했다. 전쟁 전보다 각각 17.0%, 23.4% 올랐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유조선 7척(국적선사 4척, 비국적선사 3척)의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외교부 및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사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통항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

국내기업, 물류경로 다변화 등 지속 대응

>> 1면 ‘숨통 트이나 했더니’서 계속

아직 구체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않은 상황에서의 2주간의 짧은 휴전으로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고, 협상 결렬 시에는 긴장이 재차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당분간 원자재 비축, 대체 조달선 확보, 환해지, 물류 경로 다변화 등 기존 대응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9일 현대차는 호르무즈 해

협을 통과해온 부품 공급 경로를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로 변경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정상화 되면 국내 산업계는 원가 안정과 공급망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반대로 일시적 충돌 봉합에 그칠 경우 국내 기업들은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 비용 계획 등을 새롭게 수립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